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9호 [루게 제24462호] 주제 103 (2014)년 2월 18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조선인민군 해군 지휘부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 군인들의 체육경기를 보시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해군 지휘부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 군인들의 체육경기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체육경기를 보시였다.

리영길 동지, 장정남 동지, 서홍찬 동지, 김명식 동지, 리병철 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인민군장병들이 경기를 보았다.

경기장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체육경기를 보게 된 관람자들의 기쁨과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선수들과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선수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하시며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의 자랑찬 성과로 광명성절을 뜻깊게 맞이한 인민군장병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조선인민군 해군 지휘부 군인들은 갈매기팀으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



항공군 지휘부 군인들은 제비팀으로 경기에 출전하였다. 경기는 배구와 바둑당기기로 승부를 겨

루었다. 먼저 배구경기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원대한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훈련의 실참마다 대승체육활동을 힘있게 벌려온 량팀 선수들은 자기 팀의 전술

군대가 앞장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체계를 잘 살리면서 경기를 운영하였다.

배구경기는 제비팀의 승리로 끝났다.

이어 바둑당기경기가 진행되였다.

완강한 의지와 인내력으로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치렬하게 벌어진 바둑당기경기는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무한한 힘과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바둑당기경기에서도 제비팀이 이겼다.

경기에서 우수한 팀에 대한 사상이 있었다.

체육경기가 끝나자 또다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리치는 우렁찬 <만세!>의 환호소리가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선수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하시며 경기성가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뜻깊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해군 지휘부 군인들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 군인들의 체육경기가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였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데서 인민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광명성절경축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탄생 72돐에 즈음하여 공훈국가합창단의 광명성절경축 공연이 인민극장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공훈국가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하시였다.

리영길동지, 장정남동지, 변인선동지, 서홍찬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인민군장병들이 공연을 보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경축공연을 보게 된 관람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기쁨에 넘쳐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담례를 보내시며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뜻깊게 맞이한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공연무대에는 남성합창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장군님 백마라고 달리신다》, 관현악 《장군님을 우러러 부르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뭉쳐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곳곳이 이어나가는 천만군민의 역센 신념과 의지가 장내에 도도히 굽어졌다.

공연무대에는 남성합창 《전선가까운 숲속에》, 관현악 《세계명곡목음》을 비롯한 외국곡들도 울렸다.

심장의 피를 세차게 끓게 하는 공연, 세련되고 참신한 공연,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노래한 격동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결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소구지는 격정에 겨워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은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흠모와 다함없는 신리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장군님 그 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담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공을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앞으로도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활동을 과감히 벌립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을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어나가는 장엄한 투쟁으로 더욱 힘있게 불려일으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정보단

노래》, 무반주합창 《흰눈이 내리는 데》, 기악3중주 《우리 당의 자랑이라네》, 혼성2중창과 남성합창 《바다의 노래》, 관현악 《매혹과 흥모》, 남성합창 《백두산바람 분다》, 《병사들은 행군해간다》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의 리상과 행복이 전면적으로 꽃피어나는 강성국가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자신의 한몸을 초월처럼 태우시며 한평생을 애국애민의 헌신과 로고속에 바쳐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칭송하였다. 출연자들은 또한 나라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김일성민족이 대대손손 번영해나갈수 있는 만년터전을 마련하신 위대한 장군님은 주체조선의 영상으로 언제나 우리 군대와 인민과 함께 계시며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사는 백두산대국과 더불어 천추만대에 흐를것이라는것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남성합창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는다》로 절정을 이룬 공연은 세상 천지가 열백번 뒤집히고 그 어떤 역풍이 불어치대도 오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만을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백두산혁명장군의 철석같은 맹세를 힘있게 파시하였다.









